

# 오바마, IS 뿌리뽑는다... 시리아까지 공습 확대 가능성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 국제적 군사 연합 형성 등 궁극적 격퇴 전략 제시할 듯

### 5조원 규모 테러방지기금 조성... 시리아 반군 무장·훈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 시간) 이라크와 시리아에 포진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한 전략을 공식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현재 이라크에 국한된 공습의 범위를 시리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오후 9시 백악관 스테이트 플라자에서 정색연설을 하고 IS 격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9일 밝혔다.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IS가 국제사회와 미국에 미치는 위협을 설명한 뒤 IS를 분쇄하고 궁극적으로 격퇴하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맹·우방국들을 규합해 국제적 군사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라크 내 IS 세력을 겨냥한 공습

을 확대하는 데 이어, IS 본거지가 위치한 시리아 영토에 대해서도 공습을 강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얼마 전 미국인 기자 두 명이 잡힌 이후 시리아 공습을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1명 중 시리아 공습에 찬성하는 비율이 65%에 달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시리아 반군을 무장하고 훈련하는 데 필요한 5억 달러의 예산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IS에 대한 공습 확대

를 결정한다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식으로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 문제를 논의할 당시 느닷없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요청해 군사행동 결정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공화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IS 격퇴전략의 기본 개요를 사전 설명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회동에는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회동은 지난달 8일 미국의 이라크 공습 개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의회 승인을 요청하기 보다는 '동인'(buy-in)을 얻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지도부에 IS 공습 확대를 위해 50억 달러(약 5조1250억원) 규모의 '테러방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내에서는 IS 공습확대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 또는 표결 여부에 대한 공

감대가 뚜렷하게 형성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의회 일각에서는 중간선거를 두달 앞두고 군사행동 승인과 같은 민감한 의제를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IS 공습 확대에 대한 동맹·우방국들의 지원을 끌어내고자 이날 중동의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을 방문했으며 헤이글 국방장관은 터키를 방문 중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샌디 버거, 톰 노닐란, 스티브 헤이들리 등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만나 IS 격퇴 전략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연합뉴스



물에 잠긴 인도...40만명 고립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 접경지역 카슈미르 일대에서 1주일째 이어진 폭우와 홍수로 9일(현지시간) 현재 사망자가 400명 이상에 달했다. 사진은 도시의 60~70%가 물에 잠겨 40만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진 인도령 카슈미르의 주도 스리나가르 주택가의 침수 모습. /연합뉴스

## 에볼라 사망자 증가... 의료 지원 확대

### 감염 4293명 중 2296명 사망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일 현재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5개국의 에볼라 감염자는 총 4293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2296명이라고 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라이베리아가 감염 2046명, 사망 1224명으로 서아프리카 5개국 전체 에볼라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난달 31일 현재 발표됐던 수치보다 사망자가 353명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기니가 감염 862명, 사망 555명이었고, 시에라리온은 감염 1361명 사망 509명으로 집계됐다.

기니와 시에라리온은 지난달 31일에 비해 사망자가 각각 61명과 33명이 늘어났지만, 라이베리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는 감염 21명, 사망 8명으로 사망자 수가 1명 늘어났고, 세네갈은 감염자 수만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

WHO는 그러나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없는 중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감염 및 사망자 상황은 별도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에볼라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에볼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전했다.

반 총장은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에볼라 창궐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긴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반 총장의 촉구 직후 미국은 서아프리카에 의료진을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6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으로, 서방의 자금 지원으로 최소 100명의 의료진이 서아프리카에 추가로 파견돼 6개월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에볼라 감염 의료진 전용 병원을 라이베리아에 세우기로 했고, 영국도 의료진 전용구역이 마련된 병원을 시에라리온에 설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일본인 93% “중국에 부정적 인식”...중국인 87%는 “일에 반감”

### 센카쿠 분쟁·역사문제 등 갈등 양국 50% “韓中日 관계 중요”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엔론NPO'와 중국 관영 영어신문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양국에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 응답자의 93.0%가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인은 작년 같은 조사 때보다 2.9% 포인트 늘어

났으며, 2005년 양국 공동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2005년 조사 때는 중국에 관해 좋지 않은 인식을 지녔다고 답한 일본인의 비율이 37.9%였다.

일본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녔다고 답한 중국인의 비율은 86.8%로 작년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낮아졌으나 역대 조사 결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중일 관계에 관해서는 일본인 83.4%, 중국인 67.2%가 나쁘다고 답했다.

일본인이 중국에 대해 나쁘게 인식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국제적인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55.1%) ▲자원·에너지·식량

확보 등 자기 중심적인 행동(52.8%) ▲역사문제 등에 관한 일본 비판(52.2%)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를 둘러싼 대립(50.4%) 등이었다.

중국인은 ▲센카쿠 영토 분쟁(64.0%) ▲과거 침략에 대한 사과·반성 부족(59.6%) ▲타국과 연대해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포위하려는 전략(41.8%) 등을 일본에 반감을 지니는 이유로 꼽았다.

그럼에도, 일본인의 79.4%, 중국인의 70.4%는 각각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한 것이 우려스럽거나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양국 간에 군사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는 전망이 일본인에게서는 29%로 작년보다 5.3% 포인트 늘었고, 중국인은 53.4%로 0.7% 포인트 증가했다.

일본인의 47.0%는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가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다고 답했고, 15.6%는 한일 관계가, 12.4%는 중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인의 43.5%는 한중 관계와 중일 관계가 비슷하다고 응답했고, 33.3%가 한중 관계, 6.5%가 중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관해 일본인의 68.2%는 괜찮다고 평가했지만, 중국인의 59.5%는 참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美 최고명문대학에 프린스턴大 선정

### 2위 하버드大·3위 예일大

미국의 프린스턴대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 뽑혔다.

미국의 학교평가기관 'US뉴스 & 월드리포트'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성적과 지원 경쟁률, 졸업률, 평판도, 학교 재정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종합대

학 부문에서 프린스턴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2위는 하버드대, 3위는 예일대가 차지했다.

컬럼비아와 스탠퍼드, 시카고 대학은 나란히 공동 4위를 점했다. 이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7위), 듀크대학과 펜실베이니아대학(이상 공동 8위), 캘리포니아공과대학(칼텍·10위) 순이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주남대학교

추천 회원		재혼	
<b>남</b>	<b>초혼</b>	<b>남</b>	<b>재혼</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전문직 희망 여성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간호사, 유치원 교사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의사, 약사, 교사	대기업 간부	36~59세
VIP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삼성, 현대, LG 직원	공무원(5급~9급)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은행원, 연구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대(중·소)기업 직원	간호사, 은행원	<b>女</b>	
사업가, 자영업	학원(음악)원장, 강사	VIP 희망 여성	29~53세
세무사, 연구원	스튜어디스, 영양사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국영기업체 직원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공무원, 교사	32~58세
교사, 교수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현) (063) 275-7766

광고심의일 2012-10-18-1326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구도청 남광주농협 소리큐보청기 화순 천변로

소리큐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